

20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버력 10월호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편집위원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홈페이지: <http://www.kbcil.co.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쌍방의 마음’

이번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은 9월 30일(월)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에서 진행되었고, 시간은 14:00에 시작하여 18:00까지 진행하였으며 쉬는 시간에 구매 받지 않는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은 참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잡지에 실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찢어 스케치북에 붙이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현재 원하는 것 등을 소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나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고, 변화되고 싶은지와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져 참여자들이 속 깊은 얘기를 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친목을 다졌고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료상담가 두 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루함 없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 또한 만족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여자 송○○씨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아는 얼굴들도 있어서 상담하는 동안 편안하고 좋았다고 말씀해주셨으며, 이○○씨는 내가 과연 지금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얘기해 보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을 찾았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씨는 다른 센터에서 활동가로 지내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렇게 집단동료상담 자리에서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을 이끌어 주신 두 분의 동료상담가와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 드리며, 향후 더 알찬 집단동료상담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 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발표



▶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단체사진

## 4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 4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진행 모습

이번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는 10월 12일(토) 강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 12개소가 함께 하는 행사인 '무장애길 건강걷기대회' 에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로 함께 무장애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들에게는 자기주도적 인식을 심어주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긍정적인 장애인식에 대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8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임○○씨, 안○○씨, 신○○씨’



▶ 임○○씨 심리 상담을 통한 자아성찰 진행 모습



▶ 심리상담 후 만족도조사 진행 모습

6차 ~ 7차 개별 ILP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은 임○○씨는 마지막 8차 때도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10월 15일(화)에 심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씨에게 오늘 심리상담도 마지막이고, 개별 ILP도 마지막인 것을 아느냐고 묻자 임○○씨는 알고 있다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통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상담을 받기 위해 임○○씨는 상담센터로 이동하였고, 상담을 받은 후 강북센터로 돌아와 사후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 만족도조사 때보다 임○○씨의 정서적인 안정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등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씨는 심리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며 마지막 개별 ILP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8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임○○씨, 안○○씨, 신○○씨’



▶ 떡 케이크를 만드는 중인 안○○씨의 모습



▶ 떡 케이크 완성

안○○씨의 8차 개별ILP로 ‘떡 케이크 만들기’를 10월 17일(목)에 진행하였습니다.

홈메이킹 강사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체험자의 수준에 맞는 다육이 떡 컵케이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안○○씨가 갑자기 큰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이를 반영해 ‘다육이 떡 케이크 만들기’를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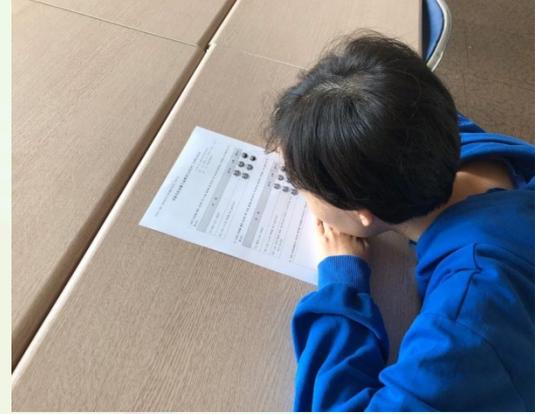
형형색색의 둥근 반죽으로 다육이 모양을 만드는 작업은 난이도가 높아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고, 강사님이 만들어주신 앙금 플라워와 안○○씨가 완성한 다육이를 갖 짝 떡 케이크 위에 올려 ‘다육이 떡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안○○씨는 자신이 완성한 떡 케이크를 보며 예쁘다는 말과 함께 집에 있는 가족들과 나눠 먹겠다는 얘기를 하며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안○○씨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담당자로서 매우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끼며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8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임○○씨, 안○○씨, 신○○씨’



▶ 신○○씨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 진행모습



▶ 신○○씨 만족도조사 진행모습

굿씨상담센터에서 신○○씨의 마지막 8차 개별ILP를 10월 22일(화)에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담인 것을 신○○씨에게 안내 해드렸고, 신○○씨는 들뜬 발걸음으로 상담실로 향하였습니다.

담당자는 신○○씨에게 ‘○○씨, 좀 있다가 만나요~’ 라고 인사를 전하였고 이에 화답하듯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신○○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신○○씨는 강북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만족도조사지를 체크하였고 마지막 개별ILP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씨는 ‘선생님이랑 더 보고 싶어요.’ 라는 짧은 소감을 남긴 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8회기를 목표로 한 개별ILP를 모두 끝마친 임○○씨와 신○○씨는 1차 ~ 8차 개별ILP 통해 평소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임○○씨의 경우 금연 캠페인과 심리 상담이 가장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며 심리 상담은 꾸준히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신○○씨는 심리 상담을 통한 성교육을 진행하여 개인위생 관리와 성에 대한 개념 확립 등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상담과 체험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담당자는 신○○씨의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반면, 안○○씨의 경우 도예체험을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어 1회를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ILP를 통하여 안○○씨의 창의성 및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당자는 체험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5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요리교실-또띠아샌드위치 & 소떡소떡)



▶ 5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요리교실 단체사진



▶ 요리를 만드는 중인 체험자

10월 25일(금) 강북센터 교육실에서 5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요리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요리교실의 메뉴는 화기사용이 적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또띠아샌드위치와 소떡소떡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참여자가 많다 보니 재료준비 및 현장 세팅 하는 데 많은 시간과 스텝이 투입되었습니다. 열심히 참여자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 보니 참여자분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였고, 출석체크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요리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메뉴 레시피를 간단히 알려드린 후 본격적으로 요리를 만들었는데 다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열심히 야채를 썰고 양념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중간 중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스텝들의 도움을 받아 요리를 만들었으며 요리를 완성한 후 각자 자리를 깔끔히 치우고 완성된 요리를 시식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먹으며 맛있다고 즐거워하셨고 집에서 해먹어야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참여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담당자로서 뿌듯함을 느끼며 프로그램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 재난안전체험 진행 (소방안전교육 광나루 안전체험관)



####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 재난안전체험 진행 모습 (소방안전교육 광나루 안전체험관)

8월에 진행되었던 재난 안전체험에 참여하지 못한 정○○씨와 김○○씨를 대상으로 10월 11일(금) 소방안전교육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안전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재난안전체험을 진행하지만, 소방안전교육 광나루 안전체험관에 방문 할 때 마다 달라지는 교관님과 교육방식 때문인지 방문 할 때마다 교육이 새롭게 느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자 정○○씨는 교관님이 앞서 설명해준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참여자끼리 대피하는 훈련에서 앞장서서 길을 리드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훈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험 교육은 외부 참여자 없이 오로지 주택 입주자 분들끼리만 진행된 것으로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었으며, 입주자 김○○씨는 교관님의 친절한 교육 진행 모습이 맘에 드셨는지 ‘다음에도 여기로 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주자 정○○씨의 적극적인 모습과 김○○씨의 높은 만족도를 받으며 이번 재난안전체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수유역 - 엉터리 생고기)



▶ 수유역 엉터리 생고기 무한리필 고기 집 방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입주자 정○○씨를 대상으로 ‘수유역 - 엉터리 생고기’ 집에서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10월 22일(화)에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정○○씨는 몇 달 전부터 작년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 때 방문 하였던 고기 집을 다시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자주 말씀해 왔던 터라 10월 22일(화)에 진행한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정○○씨가 원하는 고기 메뉴를 선정하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안돼요? 저 고기 많이 먹고 싶어요.’ 라며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는 정○○씨를 위해 무한리필 고기 집을 선택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한리필 고기 집이 처음인 정○○씨는 반찬과 라면 등을 셀프로 챙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낯설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씨는 혼자 많은 것들을 챙기며 고기를 구워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맛있게 먹는 정○○씨의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씨는 이번에 방문한 무한리필 고기 집보다 작년에 가보았던 고기 집이 더 맛있었다고 평가를 하였으며, 그 이유를 묻자 셀프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계획 시 이를 반영하여 다음 번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 (천호역 - 더 식당)



▶ 입주자 박○○씨 ‘천호역 - 더 식당’ 방문 모습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은 9월 27일(금) ‘천호역 - 더 식당’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직장생활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입주자 박○○씨와 오랜만에 계획한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이며, 진행시간과 장소 역시 입주자분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입주자 박○○씨는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 계획 시 본인이 알고 있는 맛 집이 있다고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장소와 메뉴를 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7일(금) 당일 순조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 박○○씨는 먹고 싶었던 유명 음식세트도 맛있게 남김없이 먹는 모습을 보였고, 입주자 욕구를 토대로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되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입주자분의 직장생활로 인해 늦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만, 오랜만의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입주자 박○○씨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으며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담당 코디네이터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향후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 또한 입주자 박○○씨의 욕구를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달의 정보

### 국토교통부, 28일부터 3개월 동안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 운행 개시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다.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 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 경부·남부터미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고 인권위 권고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과 운영기술의 개발에 대한 연구(2017.4~2019.9)를 진행하면서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을 하였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 하고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매시스템도 개발해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권역별 주요 도시 간 노선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버스 업계, 터미널·휴게소 업계, 장애인단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참여노선을 최종 확정하였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에 대한 세부 표준(KS P ISO 7176-19)을 정하고 있어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휠체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면충돌 시험(48km/h)에서는 상당수 휠체어가 휠체어에 고정장치 체결을 위한 고정구(연결고리)가 없거나 휠체어의 강성이 부족하여 고속버스의 좌석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달의 정보



출처: 한걸음 소식정보 블로그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 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한다.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 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 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 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 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예매시스템: <http://www.kobus.co.kr>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기사 출처: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5728>

이미지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1028\\_0015751154](http://www.newsis.com/view/?id=NISI20191028_0015751154)

<https://blog.naver.com/freekorea0815/221684113919>

## 2019년 10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김지연 민한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동현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회비 납부에 감사 드립니다

###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02-908-7776

CMS 신청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북센터 프로그램 모집 · 홍보 합니다~~!!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 (수유역 3번 출구 앞 가든타워 17층)
모 집 대 상	서울지역 장애인
모 집 기 준	1순위 - 강북구 거주 장애인 2순위 - 서울지역(강북구 외) 거주 장애인
선정방법 및 안내	참여자 선정 후 11월 20일(수) 개별연락 ※ 위 모집기준에 부합 되지 않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배 분 내 용	1가구 당 3 ~ 5kg ※ 배추 값에 따라 배분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류	신청서(신청사유 필히 기재요망), 복지카드사본(앞·뒷면)
접 수 기 간	2019년 11월 05일 ~ 11월 19일(화) 오후 5시까지 ※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방 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kbcil.co.kr">http://kbcil.co.kr</a>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및 사무실 (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70-4437-5504    ✉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 휴게시간 12:00 ~ 13:00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